

# 국내 고려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1984-2018년

양승조\*

- I. 서론
- 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III. 국내 고려인 연구 현황
- IV. 결론

## 〈국문초록〉

1984-2018년 사이에 산출된 고려인 연구 결과물들을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국내 고려인 연구사에 대한 시기구분과 각 시기별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고려인 관련 주제가 현재 국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려인 연구는 지난 35년여의 시간 동안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내었다.

둘째, 국내 고려인 연구는 양적으로 중단 없이 팽창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고 심화하는 질적인 성장도 병행해 오고 있다.

셋째, 한 세대가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진행된 양적 팽창으로 최근 수년간 연구 결과물 간행이 정체·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양적 팽창과 이에 이은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관련 세부 연구 주제들 중에는 아직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핵심어 : 고려인, 시기구분, 소련, 러시아, 중앙아시아

## I. 서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 공동체들은 두 차례의 커다란 이주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첫 번째는 조선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이주이다. 한인의 자발적 대량 해외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조선인이 동아시아 변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1863/1864년<sup>1)</sup>부터로, 이 해(들)은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련 극동지역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이주이다.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소련 시기인 1937년에 국가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지역에서 한인 이주의 역사는 조선인이 러시아 극동의 한반도 접경지역인 우수리 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래로 150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이래로 8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자발적 이주와 국가에 의한 폭력적 강제 이주라는 가슴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지 고려인 사회는 러시아와 그 주변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난’과 ‘강제’가 아니라 ‘정주’라는 다소 중립적인

---

1) 조선인-이주민이 러시아 영토인 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한 시점에 대해서는 ‘1863년 설’과 ‘1864년 설’이 대립하고 있다. 조선인이 러시아령 우수리 지역에서 러시아인과 접촉한 것은 1863년이다. 그러나 이때에 조선인-이주민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아직 이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864년에 와서야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이주민의 이주 자체와 러시아 당국의 공식 허가 중 어느 것을 이주 시점으로 간주하는 지에 따라 고려인 이주 시점을 달리 보는 두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종효, 『러시아 연방의 高麗人 歷史』, 선인, 2018, 19-33쪽을 참조하라.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 이주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이주사로만 살펴봐도, 현재 고려인 공동체 내에는 이주를 직접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강제이주 1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나아가 강제이주 시기에 유아였기에 이주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으나 이주 1세대들(조부모, 부모, 청소년 이상의 형제자매, 이웃 등)로부터 관련 사실들에 대해 들었으며, 이주 직후의 어려운 생활을 함께 겪은 1.5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대교체 과정 속에서 현재 청장년으로서 고려인 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강제이주 이후 3세대와 4세대에 속하는 고려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가슴 아픈 역사보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를 비교적 중립적인 개념인 ‘정주’라는 말로 기념하기 시작했다.<sup>2)</sup> 이렇듯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에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이주 150년과 강제이주 80년의 고려인 이주정착사를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의 한 시기를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재외 한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나,<sup>3)</sup> 한인 해외 이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83-184쪽.

3) 김윤주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외동포’ 관련 최초의 학위논문은 1968년에 나왔고(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1) - 지난 50년간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집, 2018, 333쪽), 최초의 논문은 1964년에 나왔다(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2) - 지난 50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호, 2018, 75쪽).

이보다도 다시 20여년이 더 지난 이후의 일이다. 즉, 국내 고려인 연구는 고송무의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1984)<sup>4)</sup>과 「蘇 중앙아시아의 ‘고려사람’ 문화」(1988)<sup>5)</sup>가 발간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듯 늦게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고려인 거주지가 옛 소련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냉전 시기에 대한민국에게 있어 소련은 미수교 국가이자 이념적·정치적 적대국이였기에, 국내에서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인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고려인 연구는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80년대에야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고려인 연구도 어느덧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내 고려인 연구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축적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재외 한인 연구의 주요 분야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려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주에 대한 재평가 흐름과 한 세대가 넘는 국내 고려인 연구 기간을 고려할 때 국내 고려인 연구 성과물들을 총괄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온 국내 고려인 연구사에 대한 분석들 중 다수는 이 주제를 재외 한인 연구사에 대한 연구 중 한 부분으로만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윤인진이 2010년에 발표한 「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은 국내에서 발간된 재외 한인 관련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재외 한인 거주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총괄해서 검

4)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5) 고송무, 「蘇 중앙아시아의 ‘고려사람’ 문화」, 『광장』 175호, 1988, 56-79쪽.

토하고 있기에, 고려인 연구 또한 재외 한인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만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up>6)</sup> 김윤주는 2018년의 글들에서 재외 한인 연구사 전체를 분석하면서 그 한 부분으로 고려인 연구사를 따로 살펴 보고 있기는 하나, 연구 대상 주제가 “한국어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고려인 연구사에 할애된 양도 그리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up>7)</sup> 반면 윤석호는 2018년에 「한국학계의 고려인 연구동향과 인식」을 통해 국내 고려인 연구 동향만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글은 그 형식이 고려인 관련 주요 관심 부문들에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외 연구자들과 그들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어서, 이것을 통해 국내 고려인 연구의 규모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기는 어렵다.<sup>8)</sup> 이에 비해 2008년에 나온 성동기·심현용의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이하 「고려인 연구사 정리」)은<sup>9)</sup> 1990-2011년 사이의 20여 년 동안에 국내외에서 수행된 고려인 연구 결과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한 연구로, 우리 연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다만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 제시되어 있는 국내 고려인 연구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기구분이나 수치 등과 같이 주요한 부분들에서 동의하기 어렵거나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보충과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 6) 윤인진, 「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외한인연구』 21호, 2010, 326-356쪽.  
 7)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1) - 지난 50년간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집, 2018, 325-353쪽;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2) - 지난 50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호, 2018, 65-91쪽.  
 8) 윤석호, 「한국학계의 고려인 연구동향과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4호, 2018, 267-307쪽.  
 9)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75-208쪽.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물들을 계량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고려인 연구의 경향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고려인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은 이 글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의 한러수교와 1991년의 소련 해체는 국내에서 고려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그 결과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고려인 연구 결과물들이 폭발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도 이렇듯 급증하고 있던 고려인 연구 결과물들을 분류·분석·평가함으로써 연구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고려인 연구 현황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2011년에 나온 「고려인 연구사 정리」는 이에 부응하는 연구였다. 이 글은 ‘재외한인 연구 동향’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우연하게도 소련 해체 후 20년이라는 기념할만한 시점에 발간되었다. 이렇듯 고려인 연구사를 총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글이라는 「고려인 연구사 정리」의 의의를 고려할 때, 하나의 지표로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고려인 연구사 정리」는 1990-2011년의 시기에 국내외에서 나온 고

러인 관련 연구물들을 연구자의 출신지에 따라 러시아, 러시아 외 해외, 한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인 연구를 분류하는 범주를 “첫째, 고려인이 거주하는 지역·시기별 분류”, “둘째, 고려인의 역사와 관련 주제별 분류”, “셋째, 연구주체자의 연구 분류”라는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고려인 연구결과물들은 세 번째 범주에 따라 “러시아 연구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전개된 고려인 연구 및 분석”, “국내 연구자”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이 세 연구 집단들 중에서 두 개의 국외 지역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진행된 고려인 연구는 소련 내에서 한국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인 연구의 주제와 접근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었다.<sup>10)</sup> 또한 일본과 서방에서 진행된 고려인 연구들은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소련 해체 이후에는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고려인 연구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고려인 연구와 관련된 국외 연구 집단들에 대한 소개가 상대적으로 간략한 반면, 국내 성과물들에 대한 분석은 양적으로 풍부하다. 또한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분석 대상인 고려인 연구물들을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으로 나누는 등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p>11)</sup>

10)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78-184쪽. 이 글에서는 고려인의 존재가 소련에서 한국학이 발전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한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는 19세기 후반에 제정 러시아가 우수리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한반도와 경계를 접하게 된 것이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의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Koncevich L. B. “Some Questions of the Traditional Korean Studies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242-252쪽).

11)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76-203쪽.

고려인 연구 역사에 대한 최초의 분석적 연구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연구사 정리」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연구 대상 시기 설정의 문제이다.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국내 고려인 연구의 시작점을 1990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 고려인 관련 연구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고송무의 저서가 나오는 19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실 고송무의 1984년 저작에 대해서는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필자들은 국내 고려인 연구사의 시점을 1984년이 아니라 고송무의 다른 저서인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이 발간된 1990년으로 상정하고 있다. 199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해로, 아마도 「고려인 연구사 정리」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서 국내에서 출간된 고려인 연구물에 대한 분석 출발 시점을 1990년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그러나 고송무라는 동일 필자가 1990년 보다 앞선 1984년에 고려인 연구서를 출간했으며, 이 연도 이후로 국내에서 고려인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고려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84년으로 상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sup>13)</sup>

다른 하나는 양적 통계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고려인 연구사

12)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75 각주 1, 187쪽. 한편, 「고려인 연구사 정리」 175쪽 각주 1에는

13) 1984년에 나온 고송무의 연구를 국내에서 나온 최초의 고려인 연구로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출간된 현규환의 저작들(현규환, 『韓國流移民史』 상, 어문각, 1967; 현규환, 『在蘇韓國人の 史的考察』,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2)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규환의 저작들은 고려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하지 못한 일회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에, 고려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리]에서는 국내 고려인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데 국회도서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자료들이 선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의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에 할애된 지면에 연도별 발행 도서명, 논문명, 학위논문명이 표로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긴 하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1990-2010년 사이에 고려인 관련 출간 단행본으로 50권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그런데 본 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일한 기간에 나온 고려인 관련 단행본은 143권에 달한다(아래 <표 2> 참조).

「고려인 연구사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의와 한계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계량화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sup>15)</sup> 분석 범주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으로 잡았으며, 자료 검색 키워드는 ‘고려인’ 하나만 사용했다.<sup>16)</sup> ‘고려인’ 키워드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존재했던

14)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89-190쪽.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는 본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정보서비스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집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매우 크다. 또한 국내 연구 결과물이 ‘학위논문’, ‘국내학술논문’, ‘해외학술논문’, ‘학술지’,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로 세분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의 출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16) 키워드를 ‘고려인’ 하나만 사용했기에, 러시아·CIS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자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한 사할린섬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를 가리키는 명칭인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것은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은 이주 역사와 정체성에 있어 얼마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두 집단을 커다란 의미

‘고려국 사람’이라는 의미의 ‘고려인’을 비롯한 관련 없는 자료나 중복되는 정보가 많이 검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러시아·중앙아시아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라는 의미로 서의 ‘고려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물과 저작물만 선별·정리해서 모두 753건(학위논문 72건, 학술논문 436건, 단행본 245건)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10개의 주제(‘정치’, ‘경제’, ‘사회’, ‘교육·연구’, ‘역사’, ‘어학’, ‘문학’, ‘종교’, ‘문화’, ‘예술’)로 나누어 세분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류 기준

키워드	고려인
분석범주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세부주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연구, 역사, 어학, 문학, 종교, 문화, 예술

### Ⅲ. 국내 고려인 연구 현황

국내 고려인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이라는 세 부문들로 범주화한 후, 각 범주에서 시기구분을 제시하며 시기별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단행본을 살펴보면,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단행본 발간의 특징을 2000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눈 후, 첫 번째 시

---

에서의 ‘고려인’으로 묶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모두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 러시아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미비한 사항들이 차후 다른 연구들에서 보충될 필요가 있다.

기(1990-1999)의 특징으로는 “지역의 한계성”과 “소수 연구자 중심의 연구”를, 그리고 두 번째 시기(2000-2011)를 규정하는 성격으로는 “연구의 세부화와 다양화”와 언어상의 제약, 학제간 연구의 발전 등과 같은 “연구자들의 분과학문 및 연구방법론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다음으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1990-2011년의 기간을 1997/8년을 기점으로 둘로 나눈 후, 1990-1997년의 첫 번째 시기는 “초기 고려인 연구자들”과 “소수의 국내 연구자들”이 활동하던 기간으로, 그리고 1998-2011년의 두 번째 시기는 “연구주제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나타난 반면 “연구 성과의 양적인 롤러코스트 현상”이 나타난 기간으로 특징짓고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현지 유학생 중심의 연구”와 “200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학위논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기구분(들)과 각 시기의 특징들이 기준이 분명하고 적절한 이유들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다. 한 예로 ‘단행본’ 범주에 적용한 시기구분을 보면, 1990년에서 2011년에 걸친 20여년의 시간을 10년 단위로 단순 분할한 후 각 시기별 특징을 뽑아낸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또한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세 범주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 시기구분이 시도되고 있지 않아서, 국내 고려인 연구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앞선 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좀 더 진전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면서도 앞에서 지적한 수정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고려

17)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87-188쪽.

18)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91-192쪽.

인 연구사의 경향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인 연구 동향을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의 세 범주로 나누는 후 계량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시기구분과 특징 기술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위에서 지난 35년간의 국내 고려인 연구 경향에 대한 총체적 시기구분과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자료로 1984-2018년 사이에 출간된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수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고려인 논저 연도별 분류: 1984-2018년

연도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계
1984	-	-	1	1
1985	-	-	-	-
1986	-	-	-	-
1987	-	-	-	-
1988	-	-	1	1
1989	-	-	2	2
1990	-	-	1	1
1991	-	2	2	4
1992	-	-	-	-
1993	-	1	4**	5
1994	-	-	5	5
1995	-	-	3	3
1996	-	2	4	6
1997	1	3	3	7
1998	-	11	5	16
1999	-	8	6	14
2000	-	9	2	11
2001	-	13	4	17
2002	-	9	6	15
2003	2	8	7	17

연도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계
2004	3	20	12	35
2005	1	21	19**	41
2006	4	16	11**	31
2007	1	17	9**	27
2008	2	18	14**	34
2009	4	20	13	37
2010	5	27	13	45
2011	7	23	6	36
2012	5	31	15	51
2013	2	27	20	49
2014	3	33	16	52
2015	9	33	9	51
2016	8	36	10	54
2017	6	27	15	48
2018	9	21	7	37
계	72	436	245	753

\* ‘단행본’ 범주에는 소설, 시과 같은 작품집과 기행문 등도 포함시켰다.

\*\* 단일 주제로 연속 간행된 저서는 이를 한 권으로 계상했다: 1993년 - 백한이, 『텐산 산맥: 백한이 장편대하소설』 1-5권; 2005년 - 정추, 『(소비에트시대) 고려인의 노래 : 정추 교수 채록』 1-3권; 2006년 - 『해외동포문학: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1-3권; 2006년 - 『해외동포문학: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 1-3권; 2007년 - 김병학,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권; 2008 - Ку-Дегай С. Н. 『Корейцы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гг.』 8-14; 2008 -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역사』 상, 하.

먼저 ‘단행본’을 보면, 1984-2018년의 기간에 모두 246권의 고려인 관련 도서가 출간되었다. ‘단행본’ 범주에서는 고려인 연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84-1992년의 기간으로, 이때에는 고송무, 김연수 등과 같은 해외 거주 한인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출간한 저술들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거주 지역에서 출간한 고려인 관련 저서들 및 그 번역서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sup>19)</sup> 둘째는 1993-2002년

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고려인이 기술한 저작들과 함께 한국인이 쓴 저술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고려인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가 아직 그리 많지 않았으며, 저작들 중 상당수가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기관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출간된 것이었다. 셋째는 2003-2018년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국내 고려인 관련 저서는 연평균 12권이 넘는 적지 않은 양이 출간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도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어문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다만 단행본의 연간 출간 수량에 있어서는 최소 6편(2011년)에서 20편(2013년)으로 등락폭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학술논문’은 1991-2018년의 기간에 모두 436편이 게재되었다. ‘학술논문’의 연도별 게재 편수는 세 범주들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1-2018년의 기간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91-1996년의 기간으로, 이때에는 「고려인 연구사 정리」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고려인 연구 층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학자들이 고려인 주제를 국내에 소개하는 글들이 주로 발표되었다.<sup>20)</sup> 두 번째는 1997-2018년까지의 기간으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물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인 연구

19) 이 시기의 대표저작들로는,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탐방』, 동아일보사, 1986; 김승화 저, 정태수 편역, 『소련 韓族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등이 있다.

20) 이 시기의 대표 학술논문으로는, 명월봉, 「재소 고려인 교육의 역사적 과정」, 『교육한글』 4권, 1991, 275-294쪽; 최예브끼니, 「재소고려인들의 모국어재생문제(1970-91)」, 『이중언어학』 8권, 1991, 635-638쪽; 전 뷔포르, 「1920년대 초 연해주에서의 고려인의 민족운동」, 『한국학연구』 5권, 1993, 187-197쪽; 정근식, 「중앙아시아 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사회와 역사』 48권, 1996, 87-132쪽; 유 게라심, 「러시아 ‘고려인’의 방황 어디서 끝나는가」, 『역사비평』 33권, 1996, 112-125쪽 등이 있다.

사 정리」에서는 이 두 번째 시기를 1998-2011년으로 상정한 후, 국내 고려인 연구 학술논문이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롤러 코스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로 보인다. 그것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술논문’의 게재 편 수 추세가 1997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시기는 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두 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 하나는 1997-2003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 러시아연방 및 중앙아시아의 신생 독립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에 국내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려인 문제 역시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이주사나 현지 고려인 정책 등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2003-2018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때에는 고려인 연구가 초기 단계를 벗어나 연구 기반을 확충하면서 연구주제를 정치, 역사, 문학, 문화, 예술, 전통생활 등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보이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은 2017-2018년의 기간에 ‘학술논문’의 게재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1-2003년의 하락과 이후 반등 현상을 감안할 때, 이것이 고려인 연구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정체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 지역 별 고려인 연구 경향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지역을 크게 ‘소련-CIS’,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나누었다. ‘소련-CIS’는 과거 소련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며, 중앙아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영토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로 확장된 것을 감안해서, ‘한국’을 독립된 지역으로 분류했다.

〈표 3〉 국내 고려인 연구: 연구 대상 지역별 학술논문

연도	소련-CIS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국
1991	2	-	-	-
1992	-	-	-	-
1993	-	1	-	-
1994	-	-	-	-
1995	-	-	-	-
1996	-	1	1	-
1997	-	1	2	-
1998	4	-	7	-
1999	1	2	5	-
2000	-	2	7	-
2001	4	2	7	-
2002	2	4	3	-
2003	3	4	1	-
2004	10	5	5	-
2005	11	3	7	-
2006	6	4	6	-
2007	7	1	9	-
2008	6	6	5	1
2009	6	2	12	-
2010	9	5	13	-
2011	12	4	6	1
2012	21	2	8	-
2013	13	5	9	-
2014	18	4	8	3
2015	18	6	8	1
2016	10	9	11	6
2017	5	2	9	11
2018	9	5	3	4
계	177	80	152	27



‘한국’ 범주를 제외한 409건의 학술논문들 중에서 ‘소련-CIS’에 속하는 것은 177편으로 43.28퍼센트이고, ‘러시아’에 속하는 것은 80편으로 19.56퍼센트이며,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것은 152편으로 37.16퍼센트이다. ‘소련-CIS’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범주임을 감안해서 제외한다면, 고려인 주제에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논문이 ‘러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37년의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사할린 한인을 제외한 CIS지역 고려인들의 실질적인 고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도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범주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2014년 이래로 한국 내 고려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한국 내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들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고려인의 한국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이래로 2018년까지 모두 72편의 학위논문이 출간되었는데, 이 중에서 60편은 석사학위논문이고 12편은 박사학위논문이다(<표 4> 참조). 학위논문의 초기 출간은 송의광이 고려인 문제를 다루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up>21)</sup> 그러나 그 이래로 2002년까지 관련 학위논문

21) 송의광,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최초의 고려인 주제 관련 국내 학위논문 문제에 있어,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1993년에 나온 이호창의 석사학위논문을 언급하고 있다(이호창, 「한국의 북방 정책에 관한 연구 : 한인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그러나 이호창의 논문은 고려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소련 해체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보는 연구로, 분석을 진

이 나오지 않는 짧지 않은 공백이 있기에, 고려인 문제를 다루는 학위 논문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관련 학위논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2003년으로 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로 국내에서 고려인 주제가 하나의 연구 분야로 확실히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06년 이래로 고려인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수여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를 독립적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의할 때, 국내에서 고려인 주제는 2006년 이래로 연구 대상 주제로서 고유한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려인 연구 분야에서 배출된 한국인 학위자와 고려인·외국인 학위자는 각각 68퍼센트와 32퍼센트로 모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고려인 연구사 정리」에서는 ‘학위논문’ 범주의 특징들 중 하나를 “현지 유학생 중심의 연구”로 제시하면서, 국내 고려인 관련 학위 논문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작성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7-2018년의 기간에 ‘학위논문’은 한국인이 작성한 것이 두 배 이상 많다. 시기를 「고려인 연구사 정리」의 ‘학위논문’ 연구 대상 시기인 1993-2010년으로 제한해도 각각 25편과 10편으로 오히려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다만, 32퍼센트라는 고려인·외국인 학위논문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고려인 연구 분야에서는 비 한국인 출신 연구자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

행하는 과정에서 고려인 관련 내용을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호창의 학위논문을 고려인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2) 성동기·심현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 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98쪽.

〈표 4〉 국내 고려인 연구: 학위 단계별 논문 수

연도	석사		박사	
	한국인	고려인·외국인*	한국인	고려인·외국인*
1997	1	-	-	-
1998	-	-	-	-
1999	-	-	-	-
2000	-	-	-	-
2001	-	-	-	-
2002	-	-	-	-
2003	2	-	-	-
2004	1	2	-	-
2005	1	-	-	-
2006	3	-	1	-
2007	-	1	-	-
2008	1	1	-	-
2009	2	2	-	-
2010	2	1	2	-
2011	3	2	2	-
2012	3	1	1	-
2013	1	1	-	-
2014	-	2	1	-
2015	5	3	-	1
2016	4	2	2	-
2017	3	2	1	-
2018	6	2	1	-
계	38	22	11	1

\* '고려인·외국인'은 학위논문 작성자의 성명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고려인 연구에 대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에 따른 범주별 분석을 토대로 1984-2018년의 35년여에 걸친 전체적인 시기구분과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84-1996년의 기간으로, 이 시기는 국내에서 고려인이 소

개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는 때이다. 이 시기에 연구는 ‘단행본’, 즉 해외 거주 한인 연구자들과 고려인 연구자들이 쓴 저서나 역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논문’은 소수 존재했고, ‘학술논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1996-2003년의 기간으로, 국내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한 고려인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연구는 ‘단행본’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고려인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 분야의 확립 여부를 보여주는 ‘학술논문’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활성화모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2003-2018년의 기간으로 국내에서 고려인 연구가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확립되고, 연구 결과물의 양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술논문’의 꾸준한 발표, ‘단행본’ 발간의 빠른 증가와 함께 ‘학술논문’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래로 박사학위논문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고려인 연구 분야가 독립적이고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에서 보이는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는 2016년을 정점으로 연구 결과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범주 별로 살펴보면, ‘단행본’에서는 2013년의 20권을 정점으로 2018년까지 점차 줄어들어 2018년에는 7권까지 떨어지고, ‘학술논문’은 2016년의 36편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27편, 2018년에는 21편으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 ‘학위논문’은 2015년과 2018년의 9편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성장 이후 나타나는 정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보아 고려인 연구는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보이는 연구 성과물의 감소 또는 정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정체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연구에는 관심이 필요한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인 연구 주제들이 양적 균형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물들을 주제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로 작성된 <표 5>는 1984-2018년에 나온 고려인 저서, 논문, 학위논문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연구’, ‘역사’, ‘어학’, ‘문학’, ‘종교’, ‘문화’, ‘예술’의 10개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표 5> 고려인 논저 주제별 분류: 1984-2018년

구분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총계
정치	3	25	7	35
경제	-	8	6	14
사회	20	96	67	183
교육·연구	6	15	9	30
역사	8	72	77	157
어학	7	15	2	24
문학	11	127	49	187
종교	6	7	1	14
문화	8	45	21	74
예술	3	26	6	35

먼저 각 범주별 주제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학위논문’에서는 다른 두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술논문’과 ‘단행본’에서는 ‘사회’, ‘역사’, ‘문학’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세 범주를 합한 총계를 보면, ‘사회’, ‘역사’, ‘문학’에 속하는 연구 결과물들이 각각 24.30퍼센트, 20.85퍼센트, 24.83퍼센트

로, 전체 중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고려인 연구의 양적 증가는 몇몇 특정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주도한 결과이며, 따라서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주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 IV. 결론

국내에서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고려인 연구는 2018년으로 한 세대가 넘게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연구자들과 연구 결과물들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국내 고려인 연구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4-2018년 사이에 산출된 고려인 연구 관련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고려인 연구사에 대한 시기구분과 각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려인이라는 주제가 현재 국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고려인 연구는 지난 35년여의 시간 동안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내었다. 둘째, 국내 고려인 연구는 양적으로 중단 없이 팽창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고 심화하는 질적인 성장도 병행해 오고 있다. 셋째, 한 세대가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진행된 양적 팽창으로 최근 수년간 연구 결과물 간행이 정체·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양적 팽창과 이에 이은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관련 세부 연구 주제들 중에는 아직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두어 향후 고려인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려인 관련 세부주제들 중에서 ‘경제’, ‘종교’ 등과 같이 아직 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축적되는 연구 성과들에 기반을 두어 고려인 정주사를 해외 한인 동포사 전체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새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연구가 이른바 민족사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송무, 「蘇 중앙아시아의 ‘고려사람’ 문화」, 『광장』 175호, 1988, 56-79쪽.
-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 김승화 지, 정태수 편역, 『소련 韓族史』, 대한고교서주식회사, 1989.
-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1) - 지난 50년간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집, 2018, 325-353쪽.
-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2) - 지난 50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호, 2018, 65-91쪽.
- 명월봉, 「재소 고려인 교육의 역사적 과정」, 『교육한글』 4권, 1991, 275-294쪽.
- 박종효, 『러시아 연방의 高麗人 歷史』, 선인, 2018.
- 성동기·심헌용, 「고려인 연구사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175-208쪽.
- 송의광,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탐방』, 동아일보사, 1986.
- 유 게라심, 「러시아 ‘고려인’의 방황 어디서 끝나는가」, 『역사비평』 33권, 1996, 112-125쪽.
- 윤석호, 「한국학계의 고려인 연구동향과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4호, 2018, 267-307쪽.
- 윤인진, 「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외한인연구』 21호, 2010, 326-356쪽.
- 이호창, 「한국의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 : 한인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재해·나경수·이영진·남성진·이상현·천혜숙·김명자·김미영·장장식·홍태한·신동훈·이창식·조정현·한양명·김재호·이경엽·고부자·주영하·배영동,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 전 뷔포르, 「1920년대 초 연해주에서의 고려인의 민족운동」, 『한국학연구』 5권, 1993, 187-197쪽.
- 정근식, 「중앙아시아 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사회와 역사』 48권, 1996, 87-132쪽.



최예브리니, 「재소고려인들의 모국어재생문제(1970-91)」, 『이중언어학』 8권, 1991, 635-638쪽.

현규환, 『在蘇韓國人の 史的考察』,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2.

현규환, 『韓國流移民史』 상, 어문각, 1967.

Koncevich L. B. “Some Questions of the Traditional Korean Studies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242-257쪽.

〈Abstract〉

Trends and Related Problems of Research on  
Koryo-saram in Korea: 1984-2018

Yang, Seung Jo

By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Koryo-saram produced between 1984-2018 in Korea into ‘Books’, ‘Articles’ and ‘Graduation Theses’, the Periodization of the research history of Koryo-saram conducted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ere derive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how the topics related to Koryo-saram are currently being studied in Korea.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research on Koryo-saram in Korea,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last 35 years.

Second, the study of Koryo-saram in Korea has not only expanded quantitatively, but also has grown qualitatively by diversifying and deepening research topics.

Third, the rapid quantitative expansion in the short period of more than 30 years has resulted in standstill or decrease in the amount of publications in recent years.

Fourth, despite these quantitative expansions and consequent standstill, many of the detailed research topics related to Koryo-saram still remain

poorly addressed.

Key Words : Koryo-saram, Periodization, SSSR, Russia, Central Asia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4일에 접수되어 11월 22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